

## 먹을 만한 믿음

롬14:1-4

**1.** 바울은 13장에서 '사랑은... 율법의 완성(13:10)'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. 다른 비유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'사랑'을 '율법'에 연결시켰을까요?

당시 로마교회의 유대인 개종자들 중 일부가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고, 이를 격렬히 비난하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이로 인하여 로마교회는 분열의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. 바울은 13장에서 강조했던 사랑의 원리를 로마교회에 어떻게 적용할까요?

**1.1.** (관찰) 바울은 유대 정결법을 따라 '고기를 먹지 못하는 자(2)'를 어떻게 대하여야 한다고 권면합니까?

1a: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( )

1b: 그의 의견을 ( )

3a: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( )

10b: ...어찌하여 네 형제를 ( )

\*'믿음이 연약한 자'라는 말은 실제 구원을 얻는 믿음과는 별개로 반대 그룹(강한 자)의 조롱 섞인 호칭으로 보입니다.

**1.2.** (관찰) 반대로, '먹지 않는 자들'은 '먹는 자들'을 어떻게 대하여야 한다고 권면합니까?

3b: ...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( )

10a: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( )하느냐...

**1.3.** (관찰)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?

3c: ...이는 ( )이 그를 ( )

4c: ...그를 ( ) 권능이 ( )

10c: ...( )가 ( ) 하나님의 ( ) 앞에 서리라

**1.4.** (나눔1) 바울은 서로 '심판(3,4,10,13)'하지 말고 '환영하라(1)'고 합니다. '심판'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고, 그 분만이 행동에 대한 판결을 내리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. 형제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에 대한 '주권침해 행위'라는 것이죠.

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도 '나와 다르다'는 이유로 내 형제를 비난하거나 업신여기지는 않으셨습니까? 혹은 반대로 그런 일을 당하신 적은 없으십니까? 경험을 나누면서, 서로를 쉬이 용납하지 못하는 자신과 공동체를 돌아보며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집시다.

**2.** 5-8절의 '날'은 안식일을 포함한 유대인들의 여러 주요 절기들을 가리키는 듯 보입니다. '날의 관습'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. 바울은 이마저도 '심판'해서는 안 되고 '받아야 한다'고 권면합니다.

**2.1.** (관찰) 이유가 무엇입니까? 무엇 때문에 바울은 '판단이 다른 문제'라면 서로를 용납해야 한다

고 말합니까?

6a: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( )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( ) 먹으니...

6c: 먹지 않는 자도 ( ) 먹지 아니하며...

7a: 우리 중에 누구든지 ( ) 사는 자가 ( )

7b: ( ) 죽는 자도 ( )

2.2. (나눔2) 바울은 효율이나 옳고 그름의 판단보다는 서로의 사랑의 동기를 먼저 인정해주라고 합니다. 혹시 우리 공동체에, 주류 의견과 달라 소외된 소수가 있습니까? 어떻게 하면 소수의 의견까지 포용하는 성숙한 공동체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요? 포용과 용납, 용서와 화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?

### ■ 삶을 향한 결어(結論)

미로슬라브 볼프(Miroslav volf)는 그의 책 '배제와 포용(Exclusion and Embrace)'에서, [그리스도의 수난이 보여주는 두 가지 차원에 주목하라. 그것은 인간의 적대감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과, 소외된 인류를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 안에 공간을 만드신 것이다]라고 합니다.

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의 수혜자는, 이 은총의 원리로 살기를 거부하지 않습니다. 이 은총의 결과로 우리는 그냥 '개인'이 아니라 '교회적 개인'이 되었기 때문입니다. 이제 그리스도 안의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의 존재 안에 내재하게 된 것입니다. 이 시간 사랑으로 용납하고 포용하는 사람으로 재창조해 달라고,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.